



미국 산업생산, 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8월 15일 미 연준은 7월 산업생산이 공장생산과 전력생산 등의 호조로 전월대비 0.6% 증가,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함.

- 5월 산업생산은 0.2%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0.1% 증가로 수정되었으며, 6월 산업생산은 0.4% 증가에서 0.1% 증가로 하향 조정됨.
- 산업생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생산은 기계류 생산이 1.9% 감소한 반면, 자동차생산이 3.3%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0.5% 증가, 2009년 6월 최저 수준 이후 21.9%의 증가세를 보임.
- 한편,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전력생산 또한 1.3% 증가하였고 석유와 가스 등을 포함하는 광산생산도 1.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■ 산업생산은 2012년 상반기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고 8월 뉴욕 제조업지수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추가적인 둔화가 우려되었음.

- 산업생산은 3년 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2012년 상반기 소비침체와 기업의 신규투자 축소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, 유럽재정위기가 악화될 경우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.
- 특히 뉴욕 연준이 발표한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7월 7.39에서 8월 -5.85포인트로 하락하면서 10개월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하면서 산업생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.
- 애널리스트들은 7월 산업생산 증가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, Capital Economy의 Paul Ashworth는 세계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함.

(Washington Post, 8/23 등)